

노인요양시설, 삶의 공간으로 나아가다 - 프랑스 미래의 EHPAD 모델

유우중

계원예술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

병실로서 노인요양시설

노인들이 (의학적으로) 잘 보살핌을 받는 장소, 하지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곳. 이것이 바로 무의식 속의 노인요양시설(EHPAD)의 간략한 이미지이다. 프랑스의 기존 EHPAD는 거주시설로 우리나라의 요양원과 다소 다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들어가는 것은 비슷하나 프랑스에서는 입소한 사람을 환자의 개념보다는 주민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평면조직에서 그 공간 개념이 잘 드러나는데, 6인실이 기본인 우리나라의 평면과는 달리 1인실과 2인실 스튜디오로 구성된 실 배치가 단적인 예이다.

2002년 EHPAD가 공식 설립되면서 프랑스의 요양시설 모델은 고령화와 고령자의 자율성 상실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나름 성공을 거두었지만, 노인인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과 팬데믹 상황은 EHPAD 거주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이를 돌보는 종사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많은 노인들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고립되었으며, 가족조차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동시에 이 위기는 EHPAD 시설들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운영 방식과 수용 대상이 어떠한지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실제로 팬데믹 위기 중 부각된 여러 문제들은 이미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시설의 의료화 수준, 변화된 거주자 특성에 비해 구조적으로 부족한 인력, 윤리성과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 1차 의료 및 병원과의 연계 문제, 건축적 진화의 방향성, 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일부 입소자의 사회적 고립, 관련 직종의 매력도 저하, 그리고 신기술이 미치는 영향 등이 그렇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외부 전문가나 시민 사회뿐 아니라 운영 주체들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프랑스의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기존 EHPAD 모델의 한계점이 드러난다.

팬데믹 이후 2021년 프랑스 지역보건기관(ARS)*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새로운 EHPAD를 구축하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연방 및 부처 위원회와 가지며 초기 지역 논의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회의 이후 이러한 변화에 대해 업계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강력히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ARS는 이러한 논의를 부처 차원에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옥시타니(Occitanie) 지역에서 13건의 부처 워크숍이 개최되어 미래 EHPAD에 대한 공동 비전을 구축하고 부동산 담당자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리더들이 모여 만든 마티에르 그리즈(Matière Grise) 싱크탱크에서 ‘미래의 EHPAD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주제로 네 번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건축공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프랑스가 추구하는 미래의 요양시설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

병실에서 집으로, 삶의 연장이 되는 요양시설

먼저 ‘거주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수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이 공간을 소유하고 꾸미며 자기 리듬에 맞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 자신의 공간을 꾸미고, 개인화하고 익숙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운영 리듬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리듬에 따라



자신이 쓰던 가구와 물품으로 자유롭게 방을 꾸미는 EHPAD.
출처: Groupe SOS Seniors 홈페이지(<https://www.groupeosos-seniors.org/ehpad-paul-bertololy/>)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요양원 생활은 직원들의 근무 일정에 맞춰 운영된다. 프랑스인의 90%가 ‘집에서 나이 들고 싶다’고 응답하였고(Korian 재단 조사), 62%는 ‘집처럼 느낀다는 것은 곧 스스로 생활 리듬을 정할 수 있는 자유’라고 답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의 요양원은 무엇보다도 거주자의 안전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는 종종 엄격한 생활 규칙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2030년의 요양시설은 우선 거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요양원의 건축은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병원 중심적 성향에서 벗어나 형성되었지만, 공간 배치에서는 여전히 병원의 특징을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돌봄과 그 조직 방식이 그렇다. 또한 개별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

* ARS(Agence Régionale de Santé)는 중앙정부의 보건 정책을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시행하고 지역 보건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2010년에 설립되어 공공 보건, 질병 예방, 의료위기 관리 등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단적 운영 방식이 우선 시되고 있다.

따라서 2030년까지는 ‘돌봄’을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들에게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선시되는 것은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제는 ‘돌봄의 장소’와 ‘삶의 장소’ 사이의 딜레마에 단호히 답해야 할 때이며, 이에 따라 2030년의 EHPAD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료 전문 역량의 강화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삶의 공간과 돌봄의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거주 영역과 서비스 영역의 물리적 분리가 필요하다. 전문 공간은 입주자의 생활 공간과 근접하게 배치되되, 생활 공간 외부에 계획해야 한다. 실제로 영국의 일부 시설에서는 돌봄 공간이 완전히 사라졌다. 요양사는 복도 벽에 설치된 패널 뒤에 숨겨진 컴퓨터와 태블릿을 사용하여 기록을 작성한 후 패널을 닫으면 주변 환경은 다시 주거 공간의 모습으로 유지된다. 또한 생활 단위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족관형’ 간호 공간, 즉 거주자의 삶 속에 돌봄이 침투하는 공간적 상징 역시 사라져야 한다. EHPAD 안에서도 ‘돌봄은 삶 속의 하나의 팔호일 뿐, 예외적 순간으로 머물러야 한다’.

실내 공간에 있어서 모든 디자인은 주거적 측면의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 바닥재는 기존의 기능주의적 재료(일반적 비닐 바닥재, 유리섬유 벽지 위의 사틴 페인트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고급 PVC, 컬러 리놀륨, 세척 가능한 카펫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구역에서는 비용을 고려하여 대형 타일(마루나 석재 모방)이나 접착·코팅 처리한 원목 마루 등을 적용할 수 있다. PVC 걸레반

이는 배제하고, 대신 원목을 사용하거나 벽체 마감으로 가려야 한다.

벽은 무광 페인트(필요하다면 얇은 유리섬유 벽지)를 기본으로 하고, 섬유 벽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보호 패널은 PVC 대신 라미네이트 패널이나 원목 마감재를 선호하며, 나아가서는 중간 보조 가구를 설치하여 이동식 카트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보조 장치를 최소화한다. 손잡이 또한 PVC 대신 원목을 사용해야 한다.

천장의 경우 대형 공용 공간이나 기술 공간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가짜 천장을 없애고, 필요시에도 최대한 은폐하여 주거용 건물처럼 노출된 콘크리트 슬래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동시에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방화문은 벽체와 통합된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해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공용 공간의 가구 역시 가정적 분위기를 반영해야 한다. 인체공학적 설계와 안전성을 확보하되, 일반 주거 공간처럼 다양한 형태와 색상 그리고 포근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직물은 눈부심이 없는 고급스러운 재질로 하고, 쿠션을 풍부하게 두어야 한다. 입주자에게 개방된 치료용 주방은 일상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의 가구를 적용하되, 안전장치를 더한다. 또한 원목으로 된 중고 가구를 구입하거나 재활용해 전통적 가정문화의 중심 요소를 되살려야 한다.

입주자의 방, 즉 거주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며, 이는 곧 연관된 자유의 향유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형식적인 ‘연극’에 불과하다. 따라서 입주의 과정은 ‘입소(admission)’가 아니라 ‘이사(emménagement)’로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즉 입주자와 가족은 가구 배치, 침대 위치, 벽 마감, 색상, 장식, 조명 등을 폭넓게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같이 거주하는 친구들을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여 식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auxandre-gestion-patrimoine.fr/blog/decouvrez-les-caracteristiques-essentielles-dune-chambre-dehpad-ideale/>

충분한 시간과 여유 공간(허용 인원 외의 예비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공용 공간 역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삶의 장이 되어야 한다. 입주자와 가족은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꾸미고 직원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와 방문객도 공간을 꾸미는 데 참여시켜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공용 공간의 용도는 고정되지 않아야 하며, 예를 들어 식당은 식사 외 시간에도 개방되어야 한다. 아늑하고 작은 자리들을 여러 곳에 배치하여 입주자와 가족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입주자가 스스로를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게시물이나 알림을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 공간을 최소화하고 생활 공간 속에 융합시켜야 한다. 예컨대 거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식당을 교대 공간으로 활용하고, 인터넷실을 직원과 입주자가 함께 쓰도록 할 수 있다. 직원 업무 공간은 단순 가구 형태로 축소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넓고 폐쇄적인 행정·진료 구역은 지양해야 한다. 건물의 중심부는 입주자에게 전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이동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단순한 접근성을 넘어서는 공간 설계가 필요하



공용 공간은 많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여유와 집의 '거실'과 같은 역할을 담는다.
출처: <https://www.residences-ehpad.com/actualites/quels-sont-les-principaux-objectifs-dune-ehpad/>

다. 이것은 모든 감각을 자극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닥이나 벽의 색과 질감을 통한 시각적·촉각적 자극, 분수 소리나 거실의 정숙한 분위기를 통한 청각적 자극, 주방의 음식 냄새를 통한 후각적 자극, 넓은 창을 통한 채광과 외부 조망을 통한 광학적 자극이 이루어지게 한다. 결과적으로 다감각적 안내체계(signaletique)를 위해 방문객에게 필요한 전통적 표지판은 최소화하고, 입주자에게는 감각적 공간 구조 자체가 안내 체계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요양원 건물은 전반적으로 압축적 구성을 통한 최단 이동거리를 확보하며, 공간의 명료성과 자연스러운 동선을 설계하고 중앙부를 입주자 생활의 중심지로 두며, 엘리베이터를 다수 설치하여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중앙에 개방적이고 열린 계단을 배치해 거주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표준화된 병렬형 병실 배치와 반복적인 구조는 ‘시적 감수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 건축 공간의 시적 감수성은 비합리적 공간이다. 기능을 잃으면 목적마저 잃어버리는 기존 서구 공간 구조가 아니라 공간의 가변성과 융통성을 통해 때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다목적 공간을 추구하게 되었다. 사색과 사유, 공간에서의 멎(여유)을 추구한다. 단순한 비용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의외성을 기반으로 한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축이나 대규모 개축 시에는 복제형 건축을 거부해야 한다. 집단을 형성하는 방식은 유닛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단위(semi-collectif) 생활 도입으로 서로 다른 공간 간의 의외성 있는 얹힘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생활 단위는 건물 중심과 가깝게 배치하거나, 직원 공간을 입주자 공간 속에 융합할 수 있다. 생활 단위와 병실의 타입은 동일하지 않고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오래된 주택처럼 서로 다른 성격과 구성의 공간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사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음을 포함한다. 따라서 EHPAD는 도시와 단절된 섬이 아니라 지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먼저 가족, 자원봉사자, 협회 등의 방문을 적극 장려한다. 더 나아가 공용 시설이나 근린 상업 공간을 도입해 활발한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수요를 파악한 후 건물의 심장부에 배치하고 사람들이 건물을 거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전문적 분위기의 카페, 헬스장, 마사지실, 미용실, 도서관, 극장, 예배당, 보육시설, 회의실, 정원, 놀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신축의 경우 도심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도시 속 건축의 존재감은 미학적·문화적 언어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이는 과격적이고 인상적인 디자인일 수도 있고, 지역 역사·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양식일 수도 있다.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거주하는 EHPAD, 즉 집으로서의 EHPAD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앞서 살펴본 내용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거주자들이 ‘손님’이나 ‘환자’ 혹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민’이라는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즉 EHPAD는 거주자의 것이며, 기관과 직원은 지원자여야 한다. 공간을 설계할 때는 공간의 합리성보다는

시적 감수성에 기초해야 한다. 관리를 위한 효율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만남과 이벤트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또한 거주민을 바라보는 시선도 더 이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 ‘살아가는’ 대상으로 바라보며 생활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집합주택의 주인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은 병실에 가까운 개념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관리’하는 것에만 집중된 건축 평면과 공간 구성이 주를 이룬다. 단순히 수용에만 집중하여 시설의 수만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시설을 넘어 거주하는 집으로 나아가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격리된 대지 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일 거주 공간이 아닌 현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일시적 거주, 주간 돌봄, 재택 서비스 등)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할 때 현재의 필요를 채우며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Bastien. (2020.4.25). Investir dans une chambre EHPAD apres le confinement. Enquête & Débat. <https://www.enquete-debat.fr/immobilier/investir-dans-une-chambre-ehpad-apres-le-confinement/>
- 2 Broussy, L., Guedj, J., & Kuhn-Lafont, A. (2021). L'EHPAD DU FUTUR COMMENCE AUJOURD'HUI. Les etudes de Matieres Grises.
- 3 Groupe SOS Seniors. <https://www.groupe-sos-seniors.org/ehpad-paul-bertololy/>
- 4 Le site officiel d'information pour les personnes agees et leurs aidants. (2025.7.2). Les EHPAD. <https://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vivre-dans-un-ehpad/les-differents-etablissements-medicalises/les-ehpad>
- 5 Residences EHPAD. <https://www.residences-ehpad.com/actualites/quels-sont-les-principaux-objectifs-dune-ehpad/>
- 6 Viala, F. (n.d.) Decouvrez les caracteristiques essentielles d'une chambre d'EHPAD ideale pour le bien-etre des residents. Groupe Auxandre. <https://www.auxandre-gestion-patrimoine.fr/blog/decouvrez-les-caracteristiques-essentielles-dune-chambre-dehp-ad-ideale/>
- 7 <https://www.ehpad.com/impact-covid-19-investisseur-ehpad>